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광주’ 개막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광주’ 행사가 18일 오후 광주시 북구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막했다. 티악그룹 ‘얼쑤’와 ‘김미숙 뿌리무용단’이 빛의 도시 광주를 형상화한 ‘빛의 태동’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수도 ‘3대 수장’ 공식 장기화

아문화도시추진단장·문화개발원장·문화재단 대표
전당 개관·비엔날레 20주년 맞아 문화행정 공백

‘문화수도 광주’의 3대 문화 컨트를 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과 아시아문화개발원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현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특히 뒤늦게 공모가 진행중인 아시아문화개발원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력을 동원한 문화행정 비 전문가가 내정됐다는 설이 나도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아시아문화개발원,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의 경우 지난해 말 전임 단장의 사직으로 후임자에 대한 공모절차가 완료됐음에도 현재까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문화부 안팎에서는 해당 직위가 1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전임 이영철 원장이 지난해 6월 문화전당 예술감독으로 자리를 옮긴에 따라 10개월째 공석이다. 개발원은 지난 1월 임원(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적임자를 모색했으나, 피추천인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후보를 내지 못하고 최근 공개모집으로 선임방식을 바꿨다. 개발원은 서류접수 절차를 마감하고 복수후보를 선정해 21일 면접을 거쳐 이달말까지 최대 3명의 후보자를 문화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발원장 인사방식이 두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문화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들이 정치력을 동원해 원장 자리를 노린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특정인사 내정설이 불거지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광주 문화정책 수립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도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대표이사 자리가 비어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전문

가로 전담반을 꾸려 후임 대표 인선 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는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 광주비엔날레 20주년 등 대형 문화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화수도 광주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라며 “대형 사업을 관장하는 문화기관장의 장기공백은 광주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5·18’ 삭제 파문

4·19, 6·15 공동선언도
민주당·호남의원들 반발
민주·새정치 재논의키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정치연합이 조만간 출범할 신당의 강령 및 정강정책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6·15 공동선언 등을 삭제하자는 입장을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새정치연합 측의 ‘강령·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 기존 강령의 ‘전문’ 첫 문장에 담긴 ‘4월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개혁운동’에 대한 승계 문구는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긍정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로 대체됐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계승 부분도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측의 초안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호남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DJ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전

민주당·새정치연합 정강정책 비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 4월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계승 명시 · 권력기관 개혁 국민안전보장	· 4월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계승 미포함 ·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권력분산
· 경제민주화 및 균형성장 · 재벌, 대기업의 근본적 개혁	· 공정화 시장질서 확립 ·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신분리 강화
· 보편적 복지	· 보편과 선택의 전략적 조합 · 포퓰리즘 경계
· 통일-외교-안보 순서로 기술 ·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계승 명시 · 전시적전통재건 전환 및 국방 개혁으로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 안보-외교-통일 순서로 기술 ·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계승 미포함 · 북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

*새정치연합은 초안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논쟁을 피하려고 좋은 역사, 업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김동철 의원은 “이런 것이 새정치냐”며 기가 막힌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소지를 없애고 초점을 민생에 두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과거의 사건을 회고적으로 나열하는 건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카지노 들어오나

〈J프로젝트〉
영종도에 외국계 첫 허가
개발사업도 탄력받을 듯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중국·미국계 합작회사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통보를 함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중인 ‘솔라시도(J프로젝트)’내 구성지구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시장 진출을 노린 외국 카지노 업체들에게 시장이 개방되면서 카지노 입지가 예정된 구성지구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일 중국 투자자 14명이 삼포·구성지구를 방문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96km에 989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구성지구에는 외국인 카지노 호텔, 골프장, 워터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외국 카지노업체들이 국내시장 선점 차원에서 카지노 개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Mercedes-Benz

확 바뀐 얼굴로 사는 거예요

헤라 셀-바이오 크림

확 나빠지긴 쉬워도 확 좋아지긴 어려웠던 여자 피부. 셀-바이오 크림은 5개국 특허를 받은 헤라의 차세대 안티에이징 성분, 셀-바이오 올니포커스*가 피부 문제의 핵심에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피부의 물을 바꾸줍니다. 확 차오르면서, 환하게, 확 바뀐 투명동안 피부를 경험하세요

4주 사용 후 사용자의 100%가 탄력/빛/결/윤기/수분 개선
95.45%가 톤/투명도 개선의 피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NEW
주름개선기능성
미백기능성
수분막형성인자

HERA
셀-바이오 크림

*Cell-Bio™, 피부-용화 포플라
헤라 셀-바이오 크림의 셀-바이오 올니포커스*는 피부 문제의 핵심에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피부의 물을 바꾸줍니다. 확 차오르면서, 환하게, 확 바뀐 투명동안 피부를 경험하세요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